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1면	대한민국 만세	1
江原日報	02면	"110년 만의 국보 귀향, 그날의 감격 재현"	1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 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순국선열 뜻 기려	2
江原日報	04면	이주호 “글로컬 미선정 대학도 지원할 것”	3
강원도민일보	02면	인사말 하는 이주호 부총리	4
강원도민일보	04면	이주호 부총리, 도내 글로컬대학 관심 본지정 여부 주목	4
강원도민일보	22면	원주 세인트병원 '삼산병원'으로 개명 새출발	5
江原日報	21면	김용복 도의회 농수위원장 봉사활동	5
강원도민일보	22면	고성 사랑의 짜장차	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사랑의 짜장차, 태풍 '카눈' ...	6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지방의원 간담회	7
강원도민일보	21면	학계도 놀랐다, 김낙수의 '위대한 유산'	8
江原日報	16면	철원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9
江原日報	13면	애국지사 숭모문화제 별빛축제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10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지광천(평창) 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	10
江原日報	21면	[동정]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평창)	10
강원도민일보	01면	고성 현내면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	1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내 태풍 피해 100억원 육박…영동권 복구 본격화	11
江原日報	07면	道-원주시-지큐엘 반도체 공장 신설 '맞손'	11
강원도민일보	04면	올해 여름 도내 수난사고 급증 안전대책 시급	12
강원도민일보	12면	강릉 피서객 늘었지만… 대형해변 쏠림 심각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산림엑스포, 관광특수 견인해야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생활고 호소 심상치 않아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반도체 기업 유치, 강원 반도체산업 마중물 되기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내년 국비 9조5,000억원 확보, 열정과 의지에 달려	17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종합 01면

대한민국 만세 제78회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정호

江原日報

2023년 08월 16일 (수)
종합 02면

"110년 만의 국보 귀향, 그날의 감격 재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왕조실록·지광국사탑 환원 김진태 지사 환영의 뜻 밝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최근중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과 회원,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와 시민 등 약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지광국사탑 등 110여년 만의 '국보 귀향'에 대한 감격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지난주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10월에는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다. 1913년 일제에 빼앗겨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드디어 고향 오대산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식민통치는 35년이었는데 국보들이 고향에 돌아오기까진 110년이 걸렸다. 독립된 내 나라가 있기에 이런 기쁜 소식도 있다. 국보의 귀향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다. 이 땅에는 38선이 그어졌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을 세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헌법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어 진정한 독립, 진정한 광복을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책임은 명백히 북한과 구소련에 있다고 강조하며 선진 대한민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후손에 물려주자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중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은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며 "혹자는 조국의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도둑처럼 찾아온 것이라 쉽게 말하는데, 선열들의 피나는 투쟁을 은연중 폄훼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선열들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찾고자 목숨을 걸었다. 그 용기와 결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독립유공자 고(故) 배옥성 선생의 유족 배선규씨에게 대통령 표창, 광복회 춘천지회 모상빈씨, 원주지회 류인호씨, 영동북부지회 김양환씨, 영동남부지회 최지혁씨, 강릉지회 박두영씨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박정규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우준식 신한은행 강원본부장,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전종률 G1방송 이사, 이건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정식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안정희 강원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5일 (화)
정치

강원도, 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순국선열 뜻 기려

15일 오전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서 개최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렸다.김정호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 순국선열의 뜻을 기렸다.

경축식에는 강원 지역 애국지사 유족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광복·보훈 단체장 및 회원, 기관단체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중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부장은 "광복의 기쁨은 추상적이기보다 구체적으로 자유 평등 평화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며 "우리 선열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회복됐고. 묵묵히 자리 지켜온 우리 후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선진국 문턱에 오게 됐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축사에서 "우리는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광복의 시작은 1945년 해방이지만 광복의 완성은 1948년 건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남한 단독정부라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다. 분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까지 한다"며 "이는 요새 유행하는 가짜뉴스의 원조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1948년 2월에는 조선인민군이 창설됐다. 북한에는 이미 단독정부가 들어서 있던 것인데 그렇다면 분단의 책임은 북한과 구소련에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순국선열 뜻을 이어 받아 선진 대한민국과 성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했다.

김 지사는 일제에 의해 강제 반출된 이후 112년만에 귀향한 원주 법천사지 국보 지광국사탑을 소개하며 "기쁜 소식이 또 있다. 1913년 일제에 빼앗겨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110년만에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온다"며 "국보들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독립된 나라가 있기에 가능하다. 국보의 귀향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한다"고 했다.

이날 경축식은 사전공연과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및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8월 16일 (수)
사회 04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김진태 지사, 강원자치도·지역 교육계 등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주호 “글로컬 미선정 대학도 지원할 것”

道 방문 교육 개혁 방향 논의
12개 도내大 총장과 간담회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 강원자치도·지역 교육계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와 강원자치도 내 12개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해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주호 부총리와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등은 이날 환담한 후 총장단과의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혁신성만 보고 예비지정 대학을 선정했는데, 강원자치도 내에서 3개 대학이나 선정됐다”며 축하 인사를 전하고 “지역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문화의 힘인 만큼 김진태 지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컬 대학’ 사업이 미선정된 대학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선정이 되지 않은 대학도 라이즈 체제 구축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지역, 대학, 산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강원자치도와 각 대학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부산, 대구, 경북 등 전국 7개 시범지역에서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강원도 등 10개 비시범지역에서도 라이즈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도청 개청 이래 교육부 장관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도내 대학의 글로컬 대학 최종 본 지정과 향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교육특례 반영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종합 02면

인사말 하는 이주호 부총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간담회'가 지난 14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도내 대학 총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주호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호

▶관련기사 4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종합 04면

이주호 부총리, 도내 글로컬대학 관심 본지정 여부 주목

도, 비시범지역 최초 라이즈 간담회

1도1국립대 등 언급 의견수렴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비시범지역 최초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라이즈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이주호 부총리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1도1국립대', 연세대 미래와 한림대 등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 성공한 강원도내 대학에 깊은 관심을 표시, 본 지정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이 부총리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대, 한림대를 비롯한 강원도내 12개 대학 총장단 등과 만나 라이즈 준비 상황 및 라이즈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라이즈 비시범지역에서 라이즈 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강원도내 3개 대학(강원대·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이 예비지정에 성공한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립대 총장은 "장관이 강원도가 라이즈 사업 비시범 지역임에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많은 기관이 라이즈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특히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1도1국립대를 몇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예비지정에 성공한 도내 한 대학의 총장은 "교육부 관계자들이 도내 예비지정 대학의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전 세계의 모든 대학이 20~30년 후에 따라오고 싶은 대학 모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도청과 도내 대학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강원도가 이렇게 많이 선정된 적이 없었는데, 세 군데나 예비 선정이 됐다"면서 "총장님들의 말씀과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글로컬 대학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지역-대학-산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인물 22면

원주 세인트병원 '삼산병원'으로 개명 새출발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발전과 상생"

원주혁신도시 대표 의료시설인 세인트병원이 삼산병원(병원장 우제호)으로 병원명을 바꾸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삼산병원은 최근 개원식을 통해 새롭게 변신한 병원을 대내외에 소개했다. 개원식에는 박상기 삼산의료재단 이사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장동영 대성중·고 총동문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삼산병원은 지난 2021년 2월 원주혁신도시에서 세인트병원으로 문을 열었다. 로봇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코로나19 안심케어 등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척추관절센터, 내과센터, 건강검진센터, 영상의학센터 등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205병상을 갖췄다.

삼산병원은 개명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통해 원주혁신도시의 의료여건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를 보다 높은 전문성과 우수한 의료진으로 더욱 살려 나가겠다는 각오다.

우제호 병원장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지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발전과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江原日報

2023년 08월 16일 (수)
인물 21면

김용복 도의회 농수위원장 봉사활동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 지난 13~14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성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인물 22면

고성 사랑의 짜장차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의 요청으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짜장차'(대표 오종현)가 최근 고성 태풍 피해지역에서 주민 등 600여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사진제공=강원특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5일 (화)
정치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사랑의 짜장차, 태풍 '카눈' 피해지역에 짜장면 배식

이설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짜장차'(대표 오종현)는 지난 13~14일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 고성군 현내면과 거진읍에서 피해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짜장차는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 요청해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짜장차'(대표 오종현)는 지난 13~14일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 고성군 현내면과 거진읍에서 피해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짜장차는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 요청해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lofi@kado.net

신아일보, 데일리연합 등 43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인물 23면

지난 14일 강원대 KNU스타트업큐브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지방의원 대상 간담회가 열렸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지방의원 간담회

시설 견학·사업 현안 등 논의

강원대가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춘천시의원 등과 만나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대는 지난 14일 교내 KNU스타트업큐브에서 김헌영 총장과 김명동 산학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노용호 국회의원,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운기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 김영배·유홍규·박노일 춘천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캠퍼스혁신파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학 중점추진 사업 현장을 답사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KNU스타트업큐브 시설 견학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및 강원춘천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추진현황·현안사항 발표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김헌영 총장은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지자체·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산학관연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문화 21면

학계도 놀랐다, 김낙수의 '위대한 유산'

<18세기 춘천부사>

선산 김씨 문중 첫 공개 다례제

속보=조선시대 초상화계의 스타 이명기가 그린 '김낙수 초상화'의 국가지정문화재(본지 2022년 11월 7일 25면·8월 8일자 23면 보도)의 보물 지정이 추진된다.

선산 김씨 가문이 춘천에서 200년간 이어온 일기 등 문서자료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등재 절차를 밟는다.

선산 김씨 퇴암 김낙수 선생 다례제가 지난 14일 춘천 후평숲속유치원에서 공개 행사로는 올해 처음 열렸다.

이날 다례제는 김낙수 선생의 8대 종손 김병육씨를 비롯한 선산김씨 종친회를 비롯해 육동한 춘천시장, 김희철·이영욱 도의원, 김지숙 춘천시의원, 김학배 춘천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산김씨 문중은 김낙수 선생 초상화 등 문중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에 대한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 자료를 목록화하고, 강원대 국학연구소의 학술대회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검증받아 왔다. 문중은 이같은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매년 집안에서 지내오던 다례제를 올해 처음 공개했다.

이날 다례제에서는 춘천 선산김씨 가문 소장 김낙수의 초상화와 일기 고문헌 등이 소개됐다. 특히 이중 춘천부사를 지냈던 김낙수 선생 초상화는 조선시대 김홍도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독보적 화가 이명기가 1791년 그린 작품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김낙수 초상화는 강원도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청에 보물 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다.

지역 학계에서는 이명기가 그린 초상화 중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만 오재순, 허목, 서직수, 강세황, 채제공 등이 있으며 초상화 보존 상태가 우수하고, 제작 과정 또한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보물 등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명기는 정조의 어진 작업을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선산 김씨 문중은 지난 14일 춘천 후평숲속유치원에서 퇴암 김낙수 선생 다례제를 처음 공개행사로 열렸다. 아래는 보물 지정을 신청한 이명기작 퇴암 김낙수 초상화.

퇴암 김낙수 초상화 보물 신청
조선 초상화 거장 이명기 작품

일기 자료는 도유형문화재 추진
200년 간 6대에 걸쳐 쓴 50책
"민간기록물 중 최장 기간 집필"

춘천 선산김씨 일기 역시 '강원도 유형문화재'로의 지정을 신청했다. 춘천부사를 지냈던 김낙수가 1737년부터 60년간 매일 쓴 글부터 김의집, 김익환, 김교항, 김준종, 김창림 등 1937년까지 한 가문이 200년간 6대에 걸쳐 쓴 50책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선산김씨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와 고서류를 합하면 모두 77점에 이른다.

이들 일기와 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춘천지역의 사회상과 생활상, 의상 형태 등까지 잘 알 수 있어 문화재적, 향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일기자료에는 중요한 국사는 물론 날씨와 지명, 전염병, 환자 치료 방법, 향교·서원 활동 등 당시의 생활상을 낱낱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있다. 이들 50책에 대한 국문번역 작업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아서 작업이 진행될 수록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더 나오고, 그에 따른 문화재적 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유재춘 강원대 교수는 "춘천 선산김씨 소장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료로서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며 "국내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일기를 쓴 사례가 없다. 민간 기록물 중에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일기 자료에 대한 국문 번역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수 선생 8대 종손인 김병육 씨는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품이 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한 것이 판단돼 현재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춘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를 상시 관람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formation@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8월 16일 (수)
지역 16면

철원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철원군 제78회 광복절 기념식이 15일 오전 10시 철원역사문화공원 광장에서 박경우 철원부군수, 엄기호 도의원, 강세용·김광성·이다은 군의원, 김완동 철원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6일 (수)
지역 13면

애국지사 숭모문화제 별빛축제 고성군재향군인회(회장: 최근성)는 지난 14일 오후 함명준 고성군수와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황기중 숭모비관리위원장,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애국지사 숭모문화제 별빛축제를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5일 (화)
종합

[동정]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평창)은 16일 오후 6시 평창읍사무소에서 열리는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인물동정 15면

지광천(평창) 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은 16일 오후 6시 평창읍사무소에서 열리는 민족통일 평창군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6일 (수)
인물동정 21면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평창)은 16일 오후 6시 평창읍사무소에서 열리는 민족통일 군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종합 01면

고성 현내면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과 대구시 군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이번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남궁창성

▶관련기사 2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종합 02면

도내 태풍 피해 100억원 육박…영동권 복구 본격화

14일 기준 시설물 피해 909건
농지 21ha·농작물 801ha 집계
도·시·군 21일까지 피해조사
도교육청 교육시설 현장점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영동지역 피해복구작업이 본격화됐다. 특히, 고성군 현내면은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서 피해지역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는 도내에선 속초시와 고성군 등 영동지역에 집중됐다.

태풍 카눈, 도내 영동지역 피해현황

지역	공공시설 피해	사유시설 피해	피해액
강릉시	12건	83건	5억 5300만원
속초시	21건	173건	14억 8600만원
삼척시	44건	9건	12억 3800만원
고성군	**171건**	**283건**	**43억8100만원**
양양군	69건	20건	21억원

자료/강원특별자치도

지난 14일 기준, 집계된 시설피해는 909건이다. 각 지역별 피해 건수는 고성군이 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속초시 194건, 강릉시 95건, 양양군 89건, 삼척시 5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다만, 농경지 21ha, 농작물 801.5ha가 침수·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설별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에서 329건(도로 74건·하천 80건·상·하수도 9건·사방임도 36건), 사유시설에서 589건(주택 356건·상가 205건·기타 19건)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태풍에 따른 도내 피해 규모는 100억원에 육박한다. 지역별 피해액은 지난 13일 기준 고성군 43억 8100만원, 양양군 21억원, 삼척시 12억 3800만원, 강릉시 5억 5300만원이다. 속초시 피해액은 15일 기준 14억 8600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액 규모는 해당 날짜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입력한 수치다. 도와 각 지자체는 태풍 카눈 피해조사를 오는 21일까지 이어간다.

고성군 현내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피해복구비의 약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는다. 특별재난 선포 요건은 시·군·구 기준 피해액이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영동지역 교육시설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강릉, 속초, 양양, 고성, 동해, 삼척, 태백, 홍천, 정선 등 도내 9개 지역 23개 학교와 2개 직속기관이 대상이다.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자들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정민엽·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8월 16일 (수)
경제 07면

道-원주시-지큐엘 반도체 공장 신설 '맞손'

자치도 출범 첫 투자 유치 협약
내년 3월까지 문막 건립 계획
직·간접 고용 245명 창출 기대

속보=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본보 지난 14일자 1면 보도)를 이끌어냈다.

도와 원주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인 ㈜지큐엘은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육영진 ㈜지큐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유치 협약식을 열었다.

㈜지큐엘은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반도체 공정장비용 소재 부품 생산 기업이다. 반도체 공정용 부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원주 문막에 공장을 신설한다. 투자가 완료되면 직접고용 45명을 포함해 245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원주는 수도권 접근성, 저렴한 지가 및 높은 부지 확장성, 풍부한 용수와 전력, 반도체교육센터 중심의 인력공급시스템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지큐엘은 원주의 이 같은 장점을 고려해 투자사업지로 선택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차별화된 규제 개선 및 특례 반영으로 기업이 원하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큐엘의 공장 신설 투자는 원주가 반도체 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주에 잘 정착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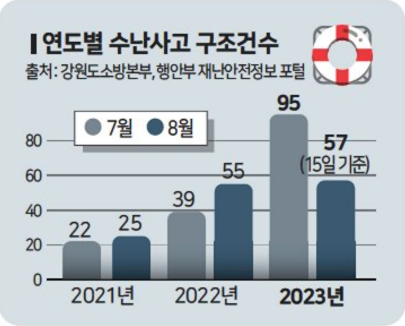
최기영기자 answer07@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인 ㈜지큐엘은 지난 14일 김진태 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육영진 ㈜지큐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유치 협약식을 열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종합 04면

올해 여름 도내 수난사고 급증 안전대책 시급

최근 3년간 8월 출동건수 역대 최다



태풍 이후 막바지 피서에 나선 시민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강원도내 바다와 계곡 등에서 물놀이 사고가 연일 발생해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올해 8월의 경우 불과 15일간 57건의 구조가 이뤄져, 지난해 같은달에 이뤄진 수난구조 55명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양양군 현남면의 한 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 등은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도내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는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삼척의 간이수영장에서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물에 빠져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구조된 아버지가 숨진 사고를 시작으로 4명의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8월은 피서 절정기를 맞으면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기간이다. 1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20~2022)간 도소방본부가 수난사고로 인해 출동한 건수는 총 2371건으로 그 중 553명을 구조했다. 월 별로 살펴보면 8월이 전체 출동건수와 구조인원이 각각 961건과 196명을 보여 8월 출동건수의 경우 전체의 40.5%에 달한다.

이런 여름철 수난사고 급증은 올해 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 재난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수난구조 건수는 262건이다. 그 중 지난 7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수난사고로 인해 소방당국의 구조건수가 153건, 올해 발생의 58.4%에 육박한다. 그중 7월이 95건이고, 아직 절반이나 남은 8월에만 57건의 구조가 속출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 발생한 도내 수난사고 94명을 이미 뛰어 넘은 셈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재훈

2023년 08월 16일 (수)
지역 12면
강원도민일보

강릉 피서객 늘었지만… 대형해변 쏠림 심각

20일까지 17개 해수욕장 운영
시 작년보다 42만명 증가 불구
주문진·안목 소규모 해변 울상

올 여름 긴 장마와 폭염, 태풍 등의 영향에도 강릉지역 피서객들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일부 해수욕장은 절반에도 못미쳐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1일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일부터 17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강릉지역 총 19개 해수욕장 중 도직과 남항진 해수욕장은 올해 미개장 했다. 이런 가운데 올 피서객은 14일 현재 177만37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4만7900여명에 비해 42만여명이 더 찾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경포에는 133만여명으로 지난해 90여만명에 비해 40만명이 넘게 방문했다. 또 강릉지역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사천진 해수욕장에는 올해 1만7000여명이 해수욕을 즐겨 지난해 4200여명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주문진 해수욕장의 경우 10만8000여명이 방문, 지난해 22만5000여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게 찾아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도깨비촬영지가 인근에 있는 영진해변도 1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1만5000여명에 비해 1000여명이 줄어드는 등 강릉북부 유명 해수욕장들에 피서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장까지는 아직 5일가량 남아 있기는 하지만 비소식이 이어지면서 피서객들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문진에서 팬션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피서객들이 크게 줄어 매출이 지난해보다 30%이상 감소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안목의 한 상인은 "경포해변에만 대형 이벤트 축제가 열리고 소규모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즐길거리가 제공되지 않아 쏠림 현상이 있다"며 "시가 소규모 해수욕장에도 균형감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태풍 등의 재난 발생에도 전국민들이 피서지로 강릉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일부 해수욕장의 피서객 감소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사설/칼럼 19면

산림엑스포, 관광특수 견인해야

-가을 단풍 시즌 연계 경기 활성화 모색을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세계잼버리 수련장과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펼쳐집니다.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아 세계 최초로 열리는 엑스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역사와 문화, 생활, 생태를 아우르는 종합 산림 축제입니다. 행사는 미래 산림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산림녹화, 산림 복원, 산불 방지 등 도의 성공 경험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을 관광특수를 끌어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장 방문과 연계 관광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최지를 중심으로 지역 경기를 견인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산림엑스포 프로그램은 여행 콘텐츠로 손색이 없습니다. 主 행사장인 강원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는 숲속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해 주는 숲속 사진관을 비롯해 숲속 보물찾기와 오징어 게임 등을 즐기는 숲속 플레이그라운드를 선보입니다. 또한 제기차기·굴렁쇠 굴리기 등의 전통 놀이를 즐기는 리사이클링 전통 놀이터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홍보하게 됩니다. 유명 유튜버와 함께 임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산림 라이브스튜디오도 관심을 끄는 아이템입니다.

인근 시군 부 행사장에서도 체험 행사가 펼쳐져 이색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고성에서는 DMZ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돌아보는 평화탐방 투어와 주요 관광지 방문 인증 후 상품권을 증정하는 테마별 스템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고성통일명태축제, 백두대간 평화트레킹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속초 청초호 일원에서는 빛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을 주제로 국화꽃 전시행사를 갖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 및 동호인 경연대회도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림엑스포를 통해 가을 관광 경기를 이끌기 위해 행사를 여행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림 전문가나 관련 분야의 축제로만 인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가자 누구나 보고 체험하며 먹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단풍 명소와 해변 관광지와 연계해 숙박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행사의 지속 가능성 여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 엑스포가 흥행한다면 공식 행사가 없더라도 매년 개최하는 이벤트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6일 (수)
사설/칼럼 19면

생활고 호소 심상치 않아

-채무조정 폭증 자살률 영향, 복지와 일자리로 보살펴야

경제 형편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조정 신청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양정숙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신용회복 신청 건수가 2022년 전체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의 신속채무조정은 작년 연간 수치와 맞먹을 정도로 급증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이들조차 자금사정에 부정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자의 58%는 4~9개 계좌의 복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상환 부담을 가중해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우려됩니다.

강원지역도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최근 대출 급증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월 발표된 한국은행 영동본부의 5월 중 금융기관 동향에 따르면 5월 중 영동지역 금융기관 여신폭이 확대됐습니다. 4월 702억원에서 5월 112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기업대출 역시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동해안 어업계에서는 각종 물가 인상으로 출어 경비는 늘고 어획량은 부진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부닥치게 되면 불안정한 일자리와 질병 발생을 가장 우려합니다. 강원은 전국 시도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이 열악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도 초단기형에 집중돼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는 재난지원금으로 일시 도움이 되긴 했으나, 지금은 각종 공과금과 식료품비, 교통비 등 인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사회에서는 생활고를 겪는 계층에서 더 많이 자살 위험에 노출됩니다. 2021년 발표된 '생활고 자살 사망자 특성과 기본 생활보장 경험 연구'(김은하·백하영)에 의하면 자살 사망자의 40% 정도가 생활고 문제로 나타납니다. 상당수 부채나 갑작스런 소득 감소, 지속적인 빈곤 문제를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 위기에 처한 가족과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두터워야 합니다.

특히 법적 기본생활보장에서 배제된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빚에서 탈출하기 위한 재기와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복지적 방안은 다각적이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경제규모와 발전에 비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강화에 인색해선 안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유대감을 강화해 취약계층 상태를 관찰하고 문제를 조기 발견해 보살피는 제도적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수)
江原日報 사설/칼럼 19면

반도체 기업 유치, 강원 반도체산업 마중물 되기를

도·(주)지큐엘 원주 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
올 들어 인테그리스코리아 이어 두 번째 성과
기업 하기 좋은 특별자치도 조성 더 중요해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 반도체 기업 투자가 유치됐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반도체 기업 ㈜지큐엘은 지난 14일 문막농공단지 원주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이자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올 3월에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기업 인테그리스코리아와 문막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맺었다. ㈜지큐엘은 2004년 10월에 설립됐으며 충북 청주 옥산과학단지에 본사를 둔 반도체용 공정장비용 부품 생산업체다. 2014년부터 50여대의 정밀 가공설비를 구축해 지속적인 기술 향상과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큐엘은 수도권 접근성, 저렴한 지가 및 높은 부지 확장성, 풍부한 용수와 전력, 반도체 교육센터 중심의 인력공급시스템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원주의 장점을 고려해 투자사업지로 선택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이어 국내 반도체 기업도 도를 선택해 강원 반도체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진태 도정은 원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산업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유치에도 팔을 걷었다. 지난해부터 국내 유망 100개 반도체 기업을 직접 접촉하며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다. 올 들어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정회원에 가입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는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와 권위, 역사를 갖고 있는 국제 반도체 협력 기구다. 1970년 설립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기업 2,400여개 회원사와 130만명의 전문가가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는 약 350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도는 회원사에게만 독점 제공되는 다양한 반도체산업 관련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반도체산업 불모지인 도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최근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기업들은 원활한 인력 공급과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필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과거 수도권 기업은 필요 인력 부족과 교통 등을 이유로 도 이전을 꺼렸다. 또 마케팅, 판로 개척의 어려움과 협력 업체 등 관련 업체 부족 등도 기피 원인이 됐다.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유리한 환경을 최대한 살려 기업 하기 좋은 조건과 획기적인 투자 여건을 강구해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 30년간 재산세 감면이라는 파격 혜택을 내놓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사례는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새로운 기업 유치와 지원, 관리 전략이 마련되면 더 많은 기업이 도를 찾아올 것이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6일 (수)
사설/칼럼 19면

내년 국비 9조5,000억원 확보, 열정과 의지에 달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9조5,000억원 국비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김진태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 주요 국비 현안 사업과 SOC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가장 주목되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강원자치도 3대 미래산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은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3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43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0억원 등에 국비 93억원을 노리고 있다. 이 밖에도 양양 서핑교육센터 조성 10억원, SOC 사업은 제2경춘국도 500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4,200억원, 강릉~제진 철도 4,500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30억원, 춘천 소양8교 49억원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꼼꼼히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업이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내년 정부 예산에 꼭 포함시켜야 할 역점 과제들이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SOC를 제대로 갖출 수 없다. 이에 국가 예산은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대부분 투입된다. 따라서 국가 예산의 확보는 곧 강원자치도 발전의 근간이 된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목표가 이뤄져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강원자치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고향 출신 공무원, 출향 인사 등 확보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존의 인적 자원에만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도 치밀해야 한다. 당위성 없이 추진만 밀어붙인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략적인 활동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국가적으로 강원자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비율이 그렇듯 3%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해 거주 인구에 비해 광활한 면적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예산 기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두된 사안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내세워 지원을 청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강원자치도의 국비 확보 전략은 고도의 치밀함이 요구된다.